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대학협력 방향



염 흥 철
대전광역시 시장

I. 교육환경의 변화와 대학협력 전담조직 신설 운영

급변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물적자원에서 인적자원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배출하는 대학의 역량이 곧 도시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과 밀접한 함수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면에서는 대학이 단순한 아카데미즘의 상아탑에서 벗어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적 유용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지역혁신을 통한 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축을 이루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서 조망해 볼 때 지역대학의 혁신능력 구축은 필수불가결의 요소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관계 형성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대학과 지자체간의 학·관(學官) 협력은 대학의 연구역량을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므로서 실사구시적 인재양성과 시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대학협력전담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대학협력 전담팀은 지역 대학과 함께 특성화된 지방대학 발전모델의 창출

을 통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지역공익사업 발굴과 지역인재 키우기 등을 추진하면서 시정과 대학교육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역발전 촉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관계 형성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대학과 지자체간의 학·관(學官) 협력은 대학의 연구역량을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므로서 실시구시적 인재양성과 시정의 질을 높힐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II. 지역과 대학의 파트너십 구축과 대학협력사업 추진

대학협력전담팀 신설에 이어 시는 대학간 발전적인 협력체제 구축과 상호 긴밀한 협의를 위해 올해 1월, 대전권 19개 대학을 비롯해 대전상공회의소, 대덕연구단지기관장 협의회, 시 교육청이 참여하는 '대전권 대학발전협의회'를 창립하였다.

또한 시와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대학특성을 살린 영상산업(목원대)과 노인복지사업(우송대), 그리고 소외 계층의 복지혜택을 위해 1대1 결연을 맺는 복지만두레사업(보건대, 혜천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외국유학생의 지역대학 유치를 통해 대학발전과 지역의 국제화를 동시에 충족하

고 나아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 및 자립형 지방화 추진에 부응하고자 지역의 8개 대학과 협력하여 2006년 준공을 목표로 외국인 공동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대학의 풍부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 지역발전 및 공동체의식 확산 등을 위한 대학참여 지역공익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III.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바람직한 협력 방향

첫째, 내실 있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제한된 물적자원과 육체노동에서 정보와 지식을 보유한 인적자원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종래의 국가단위 경쟁은 지역단위 경쟁으로 확산·분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간 경쟁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시는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 연구소, 산업체 등이 상호협력하여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학별로 자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특성화 사업을 발굴·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둘째, 미래를 주도해 갈 지역인재 양성에 지자체와 대학이 힘을 모아야 한다.

한 도시의 경제·사회발전에 있어서 지방대학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

며, 실제로 지역대학이 그 지역의 발전을 일으킨 외국의 사례는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실리콘 벨리,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파크와 울르 테크노파크 등이 대표적이며, 시스타와 울르의 경우 그 지역에서 엘릭스, 노키아 등의 대기업체와 지자체, 대학이 함께 산·학·연을 통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대전의 경우 세계적인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덕연구단지와 18개의 지역대학, 그리고 우수한 첨단 벤처기업 등이 함께 바람직한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잘 이루어낸다면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대덕 R&D 특구 조성과 함께 대학의 역할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지역주도의 교육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교육의 하드웨어적인 조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재양성이 필수적이다. 인재양성이야말로 지역발전의 핵심이며, 인재양성은 좋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신행정수도의 배후도시로서 교육적 역량과 기반을 토대로 하여 미래 대전교육혁신의 청사진이 될 대전교육발전 중장기계획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대학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대학간의 바람직한 협력방안을 살펴보고 있지만 정부는 대전시의 학·관 협력 모델

을 주목하여 지역대학 발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방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핸디캡의 보완과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 대학의 바람직한 협력 방향은 우선 내실 있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이 필요하고, 미래를 주도해 갈 지역인재 양성에 지자체와 대학이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지역주도의 교육발전을 위한 중장기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이미 21세기 경쟁상대는 국내가 아닌 세계이며, 그 경쟁력의 원천이 지역혁신체제의 성공적 구축에서 나온다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대학

염홍철

경희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연세대학교에서 석사, 중앙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콜롬비아대학교에서 수학하였다. 경남대학교 교수,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한 국공항공단 이사장, 한밭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전광역시 시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저로는 “제3세계에 있어서 종속극복의 전략”, “아시아·태평양문제 기초연구”, 『제3세계와 종속이론』 외 다수가 있다.